한국사회복지학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59, No. 1, 2007. 2, pp. 145-170.

부부갈등, 부모양육행동, 자아통제력이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분석 :

비행친구와 학교부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소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요 약]

본 연구는 부부갈등과 부모양육행동과 같은 가족과정요인과 청소년의 자아통제력이 비행친구와 학교부적응을 매개로 하여 비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의 2004년도 중2학년 청소년패널 데이터 자료를 이용하였고 분석대상은 재혼가정을 포함하여 양부모가 모두 있는 총 2,968명이었고, 분석방법은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부부갈등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아통제력, 비행친구와 학교부적응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미친 반면 부모양육행동은 자아통제력과 비행친구, 학교부적응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비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비행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개입 방안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 부부갈등, 부모양육행동, 자아통제력, 비행친구, 학교부적응, 청소년비행

1. 서론

가족은 사회화의 가장 1차적인 장소로 가족 내의 상호작용은 개인의 성격형성이나 사회적 관계형성, 아동의 발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가족은 기능의 정도에 따라 아동발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가족관련요인은 일관되게 반사회적 행동의 강력한 선행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McCord, 1991; Tolan and Loeber, 1993; Tolan, Guerra and Kendall, 1995; Kumpfer, Olds, Alexander, Zucker and Gary, 1998 재인용). Loeber와 Stouthamer-Loeber(1986)는 약 300개의 연구

에 대해 2차 자료분석을 하였는데 사회화 요소(감독의 부재, 아동에 대한 부모의 거부, 부모에 대한 아동의 거부, 부모-자녀 관여의 부족 등)가 비행의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범죄성향과 불만족스런 결혼관계 등의 부모의 역기능이 중간수준의 예측요인, 부모의 건강과 부재(abscence)는 약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구결과를 보면 부적절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비행의 가장 중요한 가족요인이고 그 다음으로 갈등적인 부부관계나 부모의 성향 등이 중요한 가족요인인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부부관계는 서로 관련이 없는 즉, 별개의 현상이라기보다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상호작용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경로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부부갈등은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험요인이며 많은 연구에서 청소년의 정서적·행동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선행연구(Fauber, Forehand, Thomas and Wierson, 1990; Erel and Burman, 1995; Krishnakumar and Buehler, 2000; Buehler and Gerard, 2002)에 따르면 부부관계는 주로 부모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부갈등은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통제적인 양육행동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이경님, 2004) 아동의 공격적 행동 및 과잉행동, 불안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며(권영옥·이정덕, 1999) 신체적, 언어적 학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연진영, 1992; 이경님, 2004). 부부갈등은 이처럼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부갈등 그 자체가 청소년의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적대적인 부부갈등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을 증가시켜 청소년의 내재화, 외현화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Davies and Forman, 2002), 청소년의 좌절된 욕구나 스트레스를 증가시킴으로써(Simons, Whitebeck, Beaman and Conger, 1994; Gerard, Buehler, Frank and Anderson, 2005) 혹은 가정폭력을 학습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이다(Buehler and Gerard, 2002; Buehler et al., 1998; Emery, 1982).

한편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자아통제이론에서는 부모, 학교, 친구와의 유대를 강조했던 사회통제이론과는 달리 낮은 자기통제력이라는 개인의 심리적 속성을 범죄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보았다. 자기통제력이 비행의 중요한 선행요인이라는 이들의 주장은 많은 경험연구(김두섭·민수홍, 1996; 민수홍, 1996, 1998, 2004; 하영희, 2003; 고정자, 2005)에서 지지되고 있으나 범죄의 직접적인 원인은 낮은 자아통제력에 있다고 봄으로써 범죄의 원인을 너무 심리학적 요소에서 찾으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강조하는 자아통제이론에서도 자기통제력이 주로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봄으로써 가족의 영향을 지적하고 있다. 즉, 부모애착이나 감독, 훈육과 같은 양육행동이 자아통제력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형성된 자아통제력이 비행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아통제력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해서만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비행의 중요한 선행요인이 되고 있는 친구관계나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침으로써(Marcos, Bahr and Johnson, 1986; Massey and Krohn, 1986) 간접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즉,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아통제력을 통하여 비행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부

모의 양육행동이 직접적으로 비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청소년들의 친구관계나 학교부적응을 매개로 어떻게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자아통제이론은 사회통제이론이나 차별접촉이론 등과 결합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 비하여 부모의 영향이 줄어들고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시기이며, 비행에 있어서도 친구집단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차별접촉이론에서는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비행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규범이나 법을 준수하는 친구들보다 그렇지 않은 비행친구들을 사귀게 되면 그만큼 친비행가치를 학습할 기회가 많게 되고, 비행을 해도 괜찮다는 비행가치를 내면화함으로써 비행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차별접촉이론에서는 청소년이 왜 비행친구와 차별적으로 접촉하게 되는지, 왜 어떤 청소년들은 비행과 관련된 가치나 동기 및 태도를 더 선호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차별접촉이론이 가지는 이와 같은 한계 즉, 청소년이 비행에 대한 태도나 동기를 어떻게 형성하고, 왜 비행친구와 차별적으로 접촉하는 지에 대한 설명의 부족은 가족과정모델이나 사회통제이론에서 이해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이론들은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1차적인 사회화과정 즉, 부모와의 애착이나 돌봄, 의사소통 등이 개인의 도덕적 신념이나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며, 더 나아가 청소년들의 중요한 사회적 관계의 장인 학교생활이나 친구관계와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의 적응을 높이고 비행을 감소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부부관계와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도덕적 신념이나 자아통제력과 같은 심리내적 기제를 통해서, 또는 청소년의 중요한 사회생활의 장인 친구관계나 학교부적응을 통해서 다양한 경로로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청소년비행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특정 변수만의 관계에 한정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 가족과정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비행관련요인들의 인과적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러 변수를 한꺼번에 투입하여 비행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각 변수의 영향력을 잘못 추정하거나 청소년이 비행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이론의 통합적 적용을 통해 부부관계와 부모의 양육행동과 같은 가족과정요인이 어떤 경로를 통해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부부관계와 부모의 양육행동이 개인의 자아통제력이라는 심리내적 기제와, 비행친구접촉 및 학교부적응과 같은 사회적 요인을 매개로 어떻게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가족과정요인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총영향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분석방법은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 간의 인과적인 관련성을 보여주고, 또한 청소년의 비행에 이르는 여러 가지 경로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가족의 영향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게 하며, 더 나아가 청소년문제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개입의 초점 및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된다.

2. 이론적 배경

1) 부부갈등과 청소년비행

(1) 부부갈등과 부모의 양육행동 : 파급효과 가설

파급효과 가설은 부부갈등이 어떻게 부적절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주요 가설로서 상당히 많은 경험연구에서 뒷받침되고 있다(Fauber et al., 1990; Erel et al., 1995; Krishnakumar and Buehler, 2000; Buehler and Gerard, 2002; 이민식, 1999; 정문자·전연진, 2005; 장진아·신희천, 2006). 이 가설은 한 관계에서 경험된 정서나 긴장은 다른 관계로 전파된다는 것인데 정서(affect)는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형제자매관계 등으로 전파될 수 있지만 부부관계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Margolin, Christensen and John, 1996). 즉, 부부갈등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정서가 부모-자녀간의 관계로 전파되어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저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부부갈등으로 화가 나 있거나, 지친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서적인 가용자원(emotional availability)이 결여되어 있고(Cox, Paley and Harter, 2001), 자녀들의 정서적 욕구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설혹 자녀들의 욕구를 알고 있다하더라도 지지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의 정서적 욕구에 대응하기 어렵다(Cox et al., 2001). 국내연구(이민식, 1999; 정문자·정연진, 2005; 장진아·신희천, 2006)에서도 부부갈등이 부모양육행동을 매개로 자녀의 내면화, 외현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파급효과 가설이 지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관찰학습이론(Observational learning theory)

파급효과 가설은 부부갈등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비행에 영향을 주는 간접경로를 강조한 것에 반해, 사회학습이론에서는 표면화된(overt) 부부갈등이 비행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다. 즉, 부부갈등에 대한 아동들의 귀인(attribution)이나 양육행동 등과 관계없이 부부갈등은 독립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Buehler, Krishnakumar, Anthony, Tittsworth and Stone, 1994).

관찰학습이론에 따르면 아이들은 어른들의 관계 특히 부모 간의 관계를 관찰함으로써 다양한 행동들 배우게 되는데(Bandura, 1986; Gager and Benin, 2005 재인용) 부부갈등이 심한 가정의 아동들은 부모들의 갈등적인 대인관계 스타일을 모방하게 되어 행동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부갈등을 많이 목격한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나, 의견충돌이 있을 때 싸움(fighting)이 적합한 방법이며, 적대적 행위를 사용하는 것이 수용되는 것으로 배우는 반면(Emery, 1982; Grych and Fincham, 1990) 부부간의 성공적인 갈등해결전략과 상호지지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훨씬 발달된 대인관계적인 “tool box”를 개발하게 되고 이것이 성공적인 대인관계로 이어지게 된다(Gager and Benin, 2005).

부부폭력에 노출되는 것이 아동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이들의 주장은 경험연구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는데 부부간 언어적, 신체적 갈등을 많이 목격한 아동이 더 공격적이 될 위험성이 높고(Grych and Fincham, 1990), 가족기능을 통제한 후에도 부부갈등은 초등학생의 공격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채유경, 2005). 또한 부모양육행동을 통제한 후에도 부부갈등은 자녀의 내면화, 외현화문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Fauber et al., 1990; 이민식, 1999; 이경님, 2004).

2)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비행

(1)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비행

부모의 양육행동 중 비행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에는 부모자녀애착, 부모감독,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등이 있다. 부모와의 애착이 높은 아이들이 비행을 적게 한다는 것은 여러 경험연구(Demuth and Brown, 2004; 김두섭・민수홍, 1996; 기광도・이희길, 2002; 하영희, 2003; 목점선, 2004; 민수홍, 2004)에서도 지지되고 있다. 또한 부모와 친밀한 애착관계를 형성한 청소년들은 성적 행동(sexual behavior)의 수준이 낮고(Jessor and Jessor, 1975; Inazu and Fox, 1980; Dornbusch, 1989 재인용) 또래압력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Savin-Williams and Berndt, 1990).

부모애착과 더불어 비행발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부모감독의 부재이다. 자녀에 대한 감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활동이나 문제들을 잘 파악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학교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친구사이의 갈등이나 집밖에서의 행동 등을 알기 어려우며 그 결과 자녀를 효과적으로 훈육하기 어렵다(김준호・노성호・이성식・곽대경・이동원・박철현, 2003). 부모의 감독은 자녀의 비행행동에 대한 반응뿐만 아니라 사귀는 친구에 대한 관심을 통하여 비행을 예방하는데 기여한다(Patterson and Dishion, 1985).

부모자녀간 의사소통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요인으로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Hirsch, 1969; 김윤희, 1990; 민하영, 1992; 고정자, 2003; 민하영・이윤주・이영미, 2004; 이영미・민하영・이윤주, 2005).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활발할 때 부모가 자녀의 자아통제력을 개발시키기에 용이하고 높은 수준의 감독이 가능하므로 자녀의 문제를 쉽게 인지하게 된다(민수홍, 1996). 비행청소년의 가족들은 의사소통을 잘 하지 못하고, 높은 수준의 가족갈등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성원의 의사소통도 공격적으로 인식하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타협하거나 협상을 하려하지 않으며(Smith and Stone, 1997) 종단연구에서도 의사소통의 문제가 비행의 예측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Mccord, 1979; Smith and Stern, 1997 재인용).

(2) 부모의 양육행동과 비행친구접촉

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에 의하면 사회 내에 법위반에 대해 긍정적인 집단과 부정적인 집단이 공존한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은 이러한 범죄행위유형과 반범죄 행위유형에 동시에 둘러싸이게 되고

개인이 반범죄 행위유형보다는 범죄행위유형에 더욱 노출되고 그와 관련된 가치, 동기 및 태도를 학습하게 될 때 범죄 혹은 비행을 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이성식, 1994). 그러나 차별접촉이론에서는 청소년이 왜 비행친구와 차별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지, 왜 어떤 청소년들은 비행과 관련된 가치나 동기 및 태도를 더 선호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Sutherland는 비행행위에 대한 선호나 비선호가 1차적인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습득되는 것임을 언급하고 있는데(Sutherland and Cressey, 1978; Massey and Krohn, 1986 재인용) 대다수 청소년의 1차적인 집단이 가정임을 고려할 때 가족 내의 상호작용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한 사회화과정이 비행에 대한 가치, 동기, 태도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이처럼 자녀의 내면화된 가치나 신념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비행문화나 비행친구에 대한 접촉을 억제시킬 뿐만 아니라, 자녀의 일상생활에의 관여나 감독 등을 통해서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사회통제이론에서는 부모와의 애착이 개인의 신념의 형성과 학교나 친구 등과 같은 관습적 사회와 유대(애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즉, 부모와의 애착이 높을수록 관습적인 신념을 잘 내면화할 뿐 아니라, 학교나 친구집단과 같은 관습사회와의 애착이 증진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경험연구에서도 지지되고 있는데 부모와의 애착은 아동의 신념과 학교애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비행친구접촉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arcos et al., 1986; Massey and Krohn, 1986).

3) 자아통제력과 비행

(1) 자아통제력과 비행

자기통제는 스스로 상황적인 요구에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으며 미래의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일시적인 충동이나 즉각적인 만족을 자제하고 인내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이경님, 2000). 낮은 자아통제력을 가진 사람은 충동적이고, 민감하지 않으며, 행동적(physical)이고 위험한 행동을 추구하고, 근시안적이며, 비언어적(nonverbal)이다. 반면 높은 자아통제력을 가진 사람은 보상을 지연하고(delay gratification) 장기적인 비용에 대해 생각하며 인지적이고 조심스러우며 다른 사람들의 이익이나 고통에 민감한 경향이 있다(Gottfredson and Hirschi, 1990).

Gottfredson과 Hirschi(1990)는 범죄의 일반이론에서 낮은 자기통제력이 범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들의 자아통제이론에 따르면 자기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은 데 비하여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낮은 자기통제력이 범죄의 원인이라는 이들의 주장은 많은 연구에서 경험적으로 증명되었는데 Pratt과 Cullen(2000)은 21개의 종단적 및 횡단적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자기통제력이 평균적으로 비행과 범죄가 갖는 변량의 19%를 설명하고 있음을 밝혀내었고 국내연구(김두섭·민수홍, 1996; 민수홍, 1996, 1998, 2004; 하영희, 2003; 고정자, 2005)에서도 자아통제력이 비행 및 범죄의 원인으로 검증되었다.

(2) 자기통제력의 주요 원인 : 부모의 양육행동

자아통제이론에서는 비행의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기통제력의 주요한 근원으로 아동양육(child rearing)을 언급하고 있는데 부적절한 양육은 낮은 자기통제력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주요한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부모가 아동을 잘 양육하고 감독하며 자녀의 비행행동에 대해 잘 감지하고 적절하게 제재를 가할 때 아동의 자기통제력이 잘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아통제력의 관계는 여러 경험연구에서 지지되었는데 부애착과 모애착은 자아통제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목점선, 2004) 부모감독도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수홍, 1994, 1998; 김두섭・민수홍, 1996; 고정자, 2005).

(3) 자아통제력과 비행친구관계

비행에 있어 친구의 영향은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지만 어떤 과정에 의해 청소년들이 비행친구집단으로 결속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Chapple, 2005). 자아통제이론에서는 자아통제력이 친구관계를 결정하고 친구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자아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그들 자신이 믿음직스럽지 않고, 일관성이 없으며, 이기적이고, 사려가 깊지 않기 때문에 좋은 친구관계를 맺기 어렵다. 자아통제력의 정도에 따라 비슷한 종류의 친구집단이 형성되는데, 자아통제력이 낮은 청소년들은 비슷한 정도의 자아통제력을 가진 친구들과 집단을 이루게 되며, 이렇게 집단을 형성하게 되면 무리를 지어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Gottfredson and Hirsch, 1990). 또 자아통제력이 약한 경우에는 충동적이고 문제행동 성향을 가진 친구들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거절을 잘 하지 못하며, 인지사회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좌절이나 실패를 보상받기 위해, 또는 친구들의 권유에 따라 문제에 가담함으로써 소속감을 가지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박성수, 1991; 전병재, 1991; 민수홍, 1996).

Chapple(2005)은 자아통제이론에서 그동안 또래관계라는 차원이 간과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자아통제력과 또래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분석결과 자아통제력이 낮을수록 또래집단에 의해 더 많이 거부되고, 비행집단과의 접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자아통제력과 학교부적응

Gottfredson과 Hirsch(1990)에 따르면 학교는 아동의 사회화기관으로 아동의 행동을 규제하고 제재하며, 학업성취나 미래의 직업적 성공이라는 보상을 위해 현재의 욕구를 억제시키는 기관이므로 자아통제력이 낮은 아동들은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본다. 자아통제력이 부족한 사람은 학교나 직장처럼 규율과 감독 등과 같은 행동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장소를 싫어한다. 다시 말하면, 자아통제력이 낮은 아동들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갖가지 행동에 대한 통제에 잘 적응하지 못하며, 충동적이고 즉각적인 만족을 선호하므로 학업성취나 직업적 성공과 같은 장기적인 보상을 댓가로 현재의 행동을 통제하는 학교의 제재에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되어 학교를 기피하게 되고 덜 제재적인 환경을 좇아 학교를 떠나게 된다는 것이다. 민수홍(2005)에 따르면 자아통제력이 지위비행이나 범죄, 남 괴롭히기,

컴퓨터관련 일탈과 같은 비행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징계경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낮은 자아통제력을 가진 청소년들은 손쉽고 즉각적인 욕구충족을 찾아 위험한 장소와 시간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어 범죄를 당하기도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민수홍, 2004).

3.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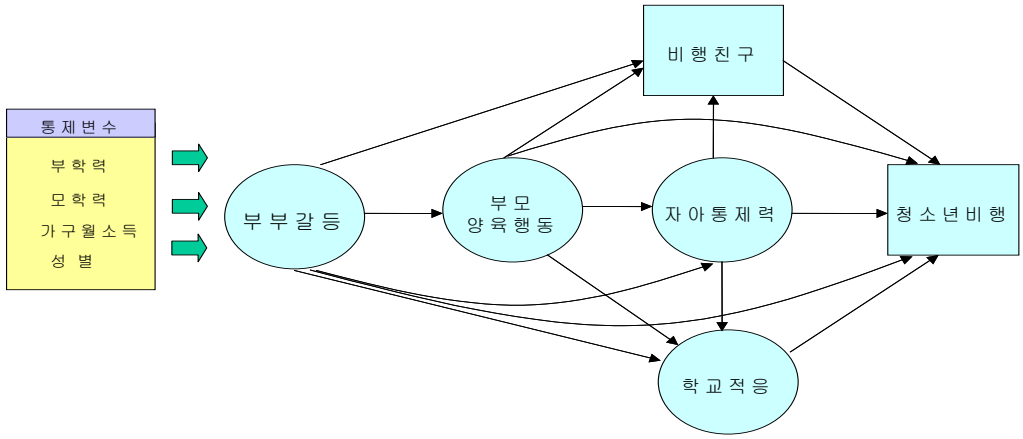
본 연구는 부부갈등 및 부모의 양육행동 등과 같은 가족과정이 청소년의 자아통제력과 학교부적응 및 비행친구를 매개로 하여, 혹은 직접적으로 청소년비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론적 개념 간의 인과적 관계를 검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을 통해 측정하고자 의도한 개념이 어느 정도 잘 측정되었는지 평가하는 한편, 구조모형(structural model)을 분석하여 개념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할 수 있으므로(김지혜, 2005) 본 연구처럼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잠재변수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할 때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을 설정하여 이론변수가 각각의 지표에 의해 잘 설명되고 있는지 먼저 평가한 다음 구조모형에서 잠재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2단계 접근법을 사용하였는데 이와 같은 이단계접근법은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먼저 평가한 다음, 측정모형이 포함된 인과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함으로써 측정의 오류와 인과관계의 오류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 해석적 혼동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김지혜, 2005).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파급효과가설에 따라 부부갈등이 부모양육행동에 영향을 주고, 부모의 양육행동이 비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경로를 설정하였다. 관찰학습이론은 부부갈등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매개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으므로 부부갈등의 비행에 대한 직접적인 경로를 설정하였다.

자아통제이론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아통제력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렇게 형성된 자아통제력은 비행의 직접적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비행의 중요한 선행요인이 되는 비행친구접촉이나 학교부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므로 자아통제력과 비행친구, 학교부적응, 비행 간에 직접경로를 설정하였다.

부부갈등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Buehler and Gerard, 2002), 부모의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 등과 같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므로(Wiatrowsi, Griswold, and Roberts, 1981; Sampson and Laub, 1994; Heimer, 1997; 이경님, 2001)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족과정이나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부(모)의 교육수준과 욕구소득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인 χ^2통계량,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인 NFI, CFI 등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NFI나 CFI는 .90이상이면 수용할 만하고(Kline, 1998; 배병렬, 2005) RMSEA는 0.10이하이면 자료를 잘 적합시키고, 0.05이하면 자료를 매우 잘 적합시킨다고 볼 수 있다(Steiger, 1990; 배병렬, 2005 재인용).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에는 AMOS(Version 5)를 이용하였고 자료의 기술통계나 t검증을 위해 SPSS(Version 12)를 사용하였다.

2)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2004년도에 조사된 2차년도 중학교 2학년 패널데이타이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는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2003년 조사시작~2008년까지 추적조사) 중 대표성 있게 표집된 3,449명의 청소년들 및 부모를 대상으로 진로·일탈·여가 등의 생활실태에 대해 조사시작 연도부터 조사완료 연도까지 동일표본을 반복적으로 추적조사하여 종단적 패널데이타를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이다(이경상, 2005). 2차년도 중2패널의 총 조사대상자는 3,499명이었으나 3,211명이 실제 응답하여 93.1%의 응답성공율을 보였으며 이 중 부모와 청소년 모두 응답에 성공한 건수는 3,122명이었다. 본 연구는 부(모) 학력과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과 부부갈등을 포함한 가족기능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므로 분석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한부모가정 143명(모자가정 95명, 부자가정 48명)과 양친 사망 9명, 응답거절 2명을 제외하고 재혼가정을 포함하여 부모가 모두 있는 총 2,968명을 최종조사대상으로 확정하였다.

3) 주요변수의 측정

(1) 부부갈등

부부갈등은 청소년이 보고한 부부간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두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1]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문항 간 신뢰도는 .81이었다.

(2)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모애착, 부모자녀의사소통, 부모감독 등 3가지 지표로 측정하였다. 각각의 지표는 여러 항목을 합산한 점수를 사용하는 항목묶기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분석 시에는 각 지표의 평균점수를 이용하였다.

부모애착은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등의 3가지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측정하였으며 문항 간 신뢰도는 .81로 나타났다.

부모자녀의사소통은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등의 3문항과 '부모님과 의견충돌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모님과 대화가 안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등의 2문항을 역점수화하여 5가지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측정하였고 문항 간 신뢰도는 .79로 나타났다.

부모감독은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언제 돌아올지를 대부분 알고 계신다' 등의 4가지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측정하였고 문항 간 신뢰도는 .87로 나타났다.

(3) 자아통제력

Grasmick 외(1993)는 자아통제력을 충동성, 단순한 일의 선호, 위험한 일의 선호, 신체적 활동의 선호 혹은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경향, 자기중심성, 급한 성미 등의 6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Grasmick, Tittle, Bursik and Arneklev, 1993). 본 연구에서는 Grasmick 외(1993)

1) 부부갈등은 다양한 측면을 지닌 개념으로 빈도, 형태, 내용, 해결방식 등 여러 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도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Grych and Fincham, 1990).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한계로 인해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의 빈도로 부부갈등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부부갈등의 여러 측면을 포괄하지 못하였다. 또한 언어폭력 및 신체폭력을 각 한 문항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두 문항간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하더라도 측정도구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가 자아통제력의 하위영역이라고 구분하여 설명한 개념이 거의 반영된 다음의 6가지 문항을 역점수화하고 이것을 합산하여 자아통제력을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통제력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며 문항 간 신뢰도는 .69였다. 자아통제력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문항은 '나는 내일 시험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그 일을 하고 본다',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나는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나는 학교숙제를 제때에 잘 해 가지 않는 편이다' 등이며 모두 5점짜리 리커드 척도로 측정된 것이다.

(4) 비행친구

비행친구는 조사대상인 청소년이 친하다고 느끼는 친구 중에서 지난 1년간 술마시기, 담배피우기, 무단결석, 폭행, 삥뜯기, 훔치기 등의 6가지 비행경험을 한 친구들의 수로 조작하였으며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5) 학교부적응

학교부적응은 '학교 교칙이나 규정에 적응하기 어렵다', '학교 공부에 흥미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다', '학교 친구들과의 사이가 좋지 못한 편이다', '학교 선생님들과의 사이가 좋지 못한 편이다' 등의 4가지 질문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모두 5점짜리 리커드 척도로 측정된 것이며 문항 간 신뢰도는 .72이었다.

(6) 비행

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14가지 종류의 청소년 비행을 비행경험유무와 비행빈도로 나누어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4가지 종류의 비행 중에서 지위비행이라 분류할 수 있는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경험 등의 4가지 비행의 경험유무를 합산한 점수를 이용하여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이상의 4가지 비행 중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청소년들은 0점이고 4가지를 모두 다 경험해 본 청소년은 4점을 얻게 되어 0점에서 4점 사이의 점수분포를 보이게 된다.

(7) 통제변수

학력수준은 부 혹은 모 동일하게 무학(1), 초등학교(2), 중학교(3), 고등학교(4), 전문대(5), 대학교(6), 대학원 석사(7), 대학원 박사(8) 순으로 서열변수식으로 코딩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가구월소득은 원자료에는 1만원 단위로 가구소득이 측정되어 있으나 소득자료의 특성상 자료가 심하게 편포되어 있어 구조방정식 분석의 전제가 되는 정규성 가정을 충족시키지 않으므로 log값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청소년의 성별은 원자료에는 남자 1, 여자 2로 코딩되어 있었으나 해석상의 편의를 위해 남자 1, 여자 0으로 코딩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4.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청소년이 보고한 부모의 부부갈등정도는 보통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언어폭력이 신체폭력보다 더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을 살펴보면 부모애착, 의사소통, 부모감독의 세 가지 지표 모두 평균점수가 3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자아통제력은 6가지 문항이 모두 평균점수가 3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자신의 자아통제력을 보통이거나 보통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부적응은 4가지 문항 모두가 보통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학업에 대한 흥미없음” 문항이 가장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친구의 평균은 1.99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비행친구 없음을 “1”로 , 비행친구 1~2명 “2”로 코딩하였음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비행행위를 하는 친구를 1~2명 정도 사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행의 평균점수는 0.47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네 가지 유형의 비행 중 한 가지 이하의 비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비행경험정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로 사용된 조사대상자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를 보면 부, 모의 교육수준이 평균적으로 모두 고졸이상이며, 부의 교육수준이 모의 교육수준보다 약간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부부갈등	언어폭력	2.08	1.09	1	5
	신체폭력	1.71	0.97	1	5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애착	3.48	0.77	1	5
	의사소통	3.31	0.74	1	5
	부모감독	3.38	0.83	1	5
자아통제력	충동성	3.01	1.19	1	5
	단순한 일 선호	3.34	0.98	1	5
	위험한 일 선호	3.47	1.08	1	5
	자기중심성	3.61	1.06	1	5
	급한 성미	3.14	1.13	1	5
	숙제를 미룸	3.21	1.11	1	5
학교부적응	교칙부적응	1.75	0.96	1	5
	학업흥미없음	2.01	1.00	1	5
	학교친구관계	1.56	0.74	1	5
	선생님관계	1.72	0.87	1	5
비행친구		1.99	1.52	1	5
비행		0.47	0.80	0	4
통제변수	부 학력수준	4.76	1.29	1	8
	모 학력수준	4.25	1.07	1	8
	가구월소득(로그변환)	5.59	1.36	3	8.01

(2) 주요변수의 자료특성과 분포특성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은 구조방정식 모형의 추정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다중공선성을 점검하였다. 먼저 변수간의 상관행렬을 검토한 결과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80 이상인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연구모형에서와 같이, 부부갈등과 부모양육행동을 제외한 4개의 내생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경로 상 직접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다중공선성의 진단지표가 될 수 있는 분산팽창계수(VIF)를 살펴본 결과, VIF가 모두 10 이하인 것을 나타났다. 이 두 가지 결과를 기초로 하여 설명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에 대해 결측치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주요변수의 결측비율이 높지 않아(최대 4.4%) 모수추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결측치의 양보다 더욱 의미있는 것은 결측치의 패턴이므로 결측치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결측치를 포함한 집단(N=219)과 결측치를 포함하지 않은 집단(N=2,749)으로 나눈 다음, 6개의 변수 각각에 대해 이 두 집단 간 평균 차이 검증(t검증)을 실시하였다. t검증 결과 부부갈등, 부모양육행동, 비행친구, 학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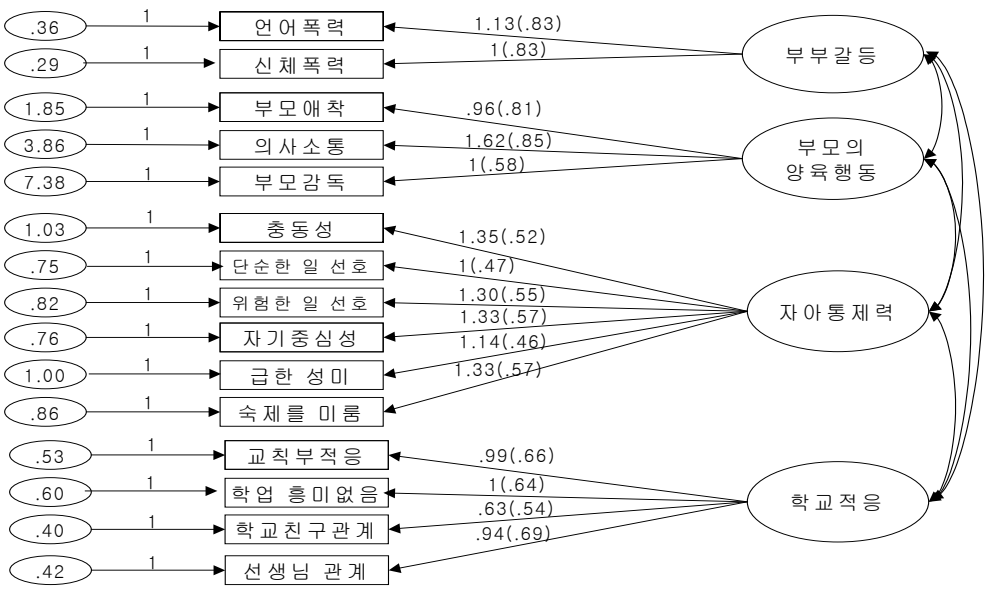
적응, 비행에 있어서는 두 집단간에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자아통제력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본 자료에서 나타난 결측치는 완전무작위결측치(MCAR : missing completely at random)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청소년패널데이타의 수집과정에서 체계적인 오차를 발생시킬 특별한 요인은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결측치의 성격이 무작위적인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무작위결측(MAR; missing at random)을 가정하는 FIML 방식으로 연구모형을 추정하였다.[2] 자료의 다변량정규성을 검토해 본 결과 모든 변수가 왜도의 경우 절대값 3미만, 첨도의 경우 절대값 10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변수들의 분포가 정규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Kline, 1998).

2) 분석결과

(1) 측정모형 분석

구조모형의 분석에 앞서 측정변수로 사용된 비행친구와 비행을 제외하고 본 연구에서 잠재변수로 사용된 4가지 변수의 각각의 지표들이 이론적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을 분석하였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인적재량은 유의수준 .01에서 모두 유의미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χ^2= 971.22(df=84), p=.000으로 카이제곱 통계량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의 데이터가 매우 크고(N=2,968) 카이제곱값이 사례수에 민감한 특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일치가 과도하게 추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적합도 지수 NFI = .912, CFI = .919, RMSEA = .060 등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측정모형이 자료를 비교적 잘 적합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결측치를 포함한 집단과 결측치를 포함하지 않은 집단 간에 자아통제력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떤 요인에 의해 이런 차이가 나타났는지를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데이터의 한계로 남겨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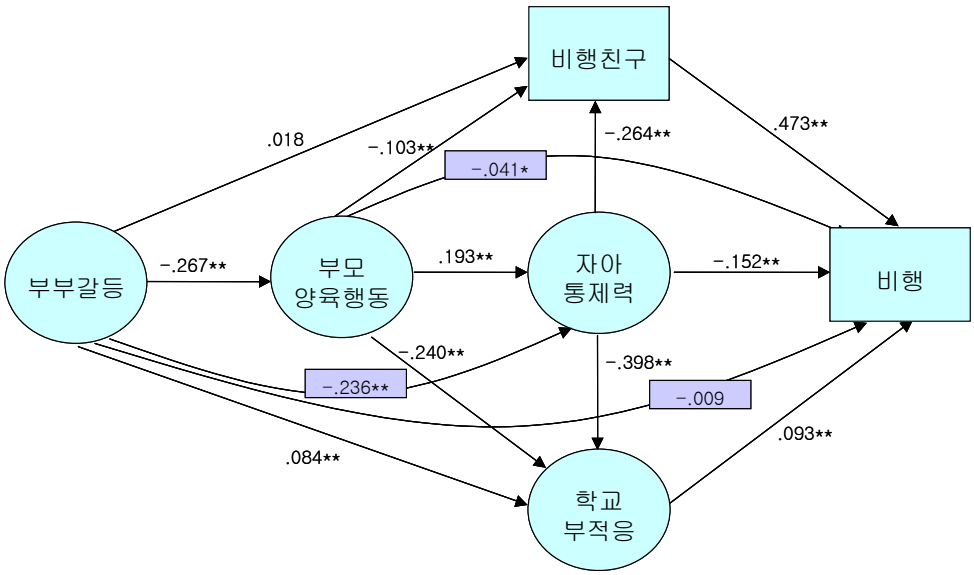


χ^2= 971.22(*df*=84), p=.000, NFI = .912, CFI = .919, RMSEA = .060
주. 제시된 수치는 비표준화추정치로 모두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함. 괄호 안은 표준화된 추정치임

<그림 2> 측정모형 요인적재량과 적합도

(2) 구조모형 분석

<그림 3>은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두 가지 경로 즉, 부부갈등 → 비행, 부부갈등 → 비행친구에 이르는 직접적인 경로를 제외하고는 본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경로들이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모형의 적합도도 χ^2= 1201.41(*df*=153), p=.000, NFI = .923, CFI = .931, RMSEA = .048으로 나타나 본 연구모형이 자료에 잘 적합함을 알 수 있다. 부부갈등은 비행친구와 비행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부모양육행동과 자아통제력, 학교부적응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갈등은 직접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청소년의 자아통제력, 학교부적응과 같은 매개변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양육행동은 비행친구나 자아통제력, 학교부적응과 같은 매개변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비행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심리내적 특질인 자아통제력은 비행친구와 학교부적응을 통해 간접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친구와 학교부적응은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 중 비행친구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473)이 매우 크게 나타나 청소년비행에 있어 친구의 영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χ^2= 1201.41(df=153), p=.000, NFI = .923, CFI = .931, RMSEA = .048
*p<.05, **p<.01

<그림 3> 구조모형의 경로계수와 적합도

<표 2>를 보면 구조모형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설명되는 부분은 약 10%이고, 자아통제력의 경우는 12%가, 비행친구는 약 10%정도가 모형에 의해 설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부적응과 비행의 경우는 30%이상이 모형에 의해 설정된 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어 본 구조모형이 학교부적응이나 비행을 잘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구조방정식에 의한 다중상관자승

내생변수	다중상관자승
부모양육행동	.103
자아통제력	.120
비행친구	.098
학교부적응	.316
비 행	.341

(4) 효과의 분해

각 변수 간의 영향관계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살펴보면 변수 간의 관계를 보다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3] <표 3>은 최종모형에서 추정된 경로계수의 효과를 분해하여 보여주고 있다. 부

부갈등은 청소년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자아통제력, 비행친구와 학교부적응을 통해 비행에 간접적인 영향(.128)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041) 자아통제력과 비행친구, 학교부적응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13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통제력은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152)을 미칠 뿐만 아니라 비행친구와 학교부적응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162)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최종모형 변수의 효과의 분해 : 표준화 계수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부부갈등 → 부모의 양육행동	-.267	-.267	-
부부갈등 → 비행친구	.042	-	.042
부부갈등 → 학교부적응	.169	.084	.085
부부갈등 → 자아통제력	-.287	-.236	-.051
부부갈등 → 비행	.117	-	.117
부모의 양육행동 → 자아통제력	.193	.193	-
부모의 양육행동 → 비행친구	-.154	-.103	-.051
부모의 양육행동 → 학교부적응	-.317	-.240	-.077
부모의 양육행동 → 비행	-.172	-.041	-.131
자아통제력 → 비행친구	-.264	-.264	-
자아통제력 → 학교부적응	-.398	-.398	-
자아통제력 → 비행	-.314	-.152	-.162
비행친구 → 비행	.473	.473	-
학교부적응 → 비행	.093	.093	-

이로부터 부부갈등과 부모양육행동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다음의 14가지가 있는데 이를 몇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부부갈등이 부모양육행동을 매개로 비행에 이르는 경로

부부갈등이 부모양육행동을 매개로하여 비행에 이르는 경로는 아래의 5가지로 나타났는데 이를 요약하면 부부갈등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부정적 양육행동이 비행친구나 학교부적응, 자아통제력에 영향을 미쳐 비행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중 효과가 가장 큰 경로는

3) 간접효과를 엄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각 경로에 대한 표준오차를 계산한 후 이것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AMOS 프로그램에서는 bootstrap method를 사용하여 간접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결측치를 포함하고 있어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었다.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각 해당 경로의 표준오차를 계산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 본 연구에서는 각 경로에 대한 통계적 검증은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된 간접효과의 크기나 각 경로의 효과의 크기는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결과임을 밝히는 바이다.

〔경로 1〕 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 1〕 부부갈등 → 부모의 양육행동 → 비행친구 → 비행
이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효과는 .013(.267×.103×.473=.013)이다.
〔경로 2〕 부부갈등 → 부모의 양육행동 → 학교부적응 → 비행
이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효과는 .006(.267×.240×.093=.006)이다.
〔경로 3〕 부부갈등 → 부모의 양육행동 → 자아통제력 → 비행
이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효과는 .008(.267×.193×.152=.008)이다.
〔경로 4〕 부부갈등 → 부모의 양육행동 → 자아통제력 → 비행친구 → 비행
이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효과는 .006(.267×.193×.264×.473=.006)이다.
〔경로 5〕 부부갈등 → 부모의 양육행동 → 자아통제력 → 학교부적응 → 비행
이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효과는 .002(.267×.193×.398×.093=.002)이다.

② 부부갈등이 자아통제력을 매개로 비행에 이르는 경로

부부갈등은 부모의 양육행동을 매개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자아통제력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비행으로 이어지게 된다. 부부갈등이 자아통제력을 직접 매개하여 비행에 이르는 경로는 아래의 3가지이며 이 중 부부갈등에서 자아통제력을 통해 비행으로 이어지는 〔경로 6〕 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 6〕 부부갈등 → 자아통제력 → 비행
이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효과는 .036(.236×.152=.036)이다.
〔경로 7〕 부부갈등 → 자아통제력 → 비행친구 → 비행
이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효과는 .029(.236×.264×.473=.029)이다.
〔경로 8〕 부부갈등 → 자아통제력 → 학교부적응 → 비행
이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효과는 .009(.236×.398×.093=.009)이다.

③ 부부갈등이 학교부적응을 매개로 비행에 이르는 경로

부부갈등은 부모양육행동이나 자아통제력을 매개하지 않고도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하여 비행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경로 9〕 는 부부갈등이 심할수록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비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효과는 .008(.084×.093=.008)이다.
〔경로 9〕 부부갈등 → 학교부적응 → 비행

④ 부모양육행동이 비행에 이르는 경로

부모양육행동은 비행에 직·간접적 영향을 모두 나타내었는데 이 중 부모양육행동에서 비행친구를

통해 비행에 이르는 〔경로 11〕이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 10〕 부모양육행동 → 비행(.041)
〔경로 11〕 부모양육행동 → 비행친구 → 비행
이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효과는 .049(.103×.473=.049)이다.
〔경로 12〕 부모양육행동 → 학교부적응 → 비행
이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효과는 .022(.240×.093=.022)이다.
〔경로 13〕 부모양육행동 → 자아통제력 → 비행
이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효과는 .029(.193×.152=.029)이다.
〔경로 14〕 부모양육행동 → 자아통제력 → 비행친구 → 비행
이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효과는 .024(.193×.264×.473=.024)이다.
〔경로 15〕 부모양육행동 → 자아통제력 → 학교부적응 → 비행
이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효과는 .007(.193×.398×.093=.007)이다.

5. 논의

본 연구는 부부갈등과 부모양육행동과 같은 가족과정요인과 청소년의 자아통제력이 비행친구와 학교부적응을 매개로 어떻게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가족과정 및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의 학력과 가구월소득, 아동성별을 통제한 후 분석한 결과, 부부갈등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아통제력, 비행친구와 학교부적응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갈등 그 자체가 비행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기보다 갈등적인 부부관계가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저해하고, 아동의 자아통제력을 떨어뜨리며, 학교부적응을 초래하고,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증가시킴으로서 간접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갈등이 비행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던 관찰학습이론보다는 부부갈등이 양육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준다고 한 파급효과가설이 지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선행연구(Fauber et al., 1990; 이경님, 2004; 채유경, 2005)와 달리 본 연구에서 부부갈등이 비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데에는 매개변수로 학교부적응과 비행친구변인을 도입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부부갈등의 비행에 대한 직접적 효과는 후속 연구를 통해서 더욱 엄밀히 검증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부부갈등과 달리 부모양육행동은 비행에 직·간접적 영향을 모두 나타내었으나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여러 경로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양육행동이 부정적일수록 비행친구 수가 증가하고 학교부적응이 높아지며, 자아통제력은 낮아지게 되어 비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부부갈등과 부모양육행동은 비행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비행의 중요 예측요인인 자아통제력과, 비행친구나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비행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청소년의 비행과정을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청소년의 자아통제력은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비행친구와 학교부적응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자아통제력이 낮은 청소년들은 낮은 통제력으로 인해 그 자체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자아통제력이 낮을수록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증가하게 되고, 또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하기 어려우므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개인의 자아통제력이 자신이 사귀는 친구의 유형을 결정하고 학교부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던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자아통제이론이 명확하게 지지되는 것으로서 자아통제력과 비행 간의 매개요인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부갈등이나 부모양육행동과 같은 가족과정요인과 청소년의 자아통제력이 청소년비행의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비행친구와 학교부적응을 매개로 어떻게 비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청소년비행에 있어 가족, 친구, 학교 등의 영향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였으며, 각 경로의 효과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부부갈등이나 양육행동과 같은 가족과정요인이 아동기에 비해 또래의 영향이 강화된 청소년기에도 여전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가족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그간의 국내연구에서는 자아통제력이 비행의 중요한 선행요인임을 밝히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자아통제력이 어떤 매개요인을 통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자아통제이론에 기반하여 자아통제력이 직접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뿐만 아니라 비행의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예측되고 있는 비행친구나 학교부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이런 매개변인을 통해 어느 정도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자아통제력의 비행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부부갈등 및 부모양육행동 등과 같은 가족과정요인이 자아통제력이라는 심리적 특질과 비행친구나 학교부적응 등의 사회적 요인을 매개로 어떻게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함으로써 청소년비행을 예방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적 개입지점을 제시하여 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부부갈등과 부모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심리내적 기제(즉 자아통제력)와 학교적응이나 비행친구 등과 같은 청소년의 사회적 삶을 통해 여러 가지 경로로 비행에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비행을 예방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개인에게만 초점을 두는 프로그램보다 부모 혹은 가족차원의 개입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비행을 예방 혹은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가족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문제 혹은 부모문제로 인하여 그 영향이 청소년문제로 비화되는 경우에는 가족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청소년 문제행동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므로(한국청소년상담원 홈페이지) 부부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부부의사소통 증진프로그램, 부부상담, 가족치료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더 많이 개발되고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자아통제력이나 친구관계, 학교부적응을 통해 비행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많은 부모들이 청소년자녀들을 효과적으로 양육하는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김용석·박명숙, 2000) 자녀와의 대화법을 익히고, 청소년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며, 청소년문제행동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부모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보급되어

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자아통제력은 그 자체로 비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일 뿐만 아니라 비행친구나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학교나 가정 및 청소년관련기관에서는 입시중심의 교과교육이외에 청소년의 자아통제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취미·여가·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2004년에 조사된 2차년도 중학교 2학년 패널데이타로서 1개년도의 자료로 분석한 결과에 대해 인과적인 추론을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연구결과의 해석에 제한이 따르며, 부부갈등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엄중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종단연구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부갈등이나 부모양육행동은 청소년이 지각한 것으로써 부모가 보고하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여러 정보제공자(예: 부모, 청소년, 외부관찰자 등)로부터 얻은 자료에 비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참고문헌

고정자. 2003. “청소년의 개인변인과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변인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7): 121-143.

_____. 2005. “부모의 감독정도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2): 1-17.

권영옥·이정덕. 1999. “부부갈등과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20(1): 115-133.

기광도·이희길. 2002.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비행에 미치는 효과분석”. 『교정연구』 16: 7-27.

김두섭·민수홍. 1996. 『개인의 자기통제력이 범죄억제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용석·박명숙. 2000. “청소년 문제행동의 공통요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2: 83-106.

김윤희. 1990. “부부관계, 부모-자녀의사소통, 가족기능과 청소년자녀 비행과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준호·노성호·이성식·곽대경·이동원·박철현. 2003. 『청소년비행론』. 청목출판사

김지혜. 2005. “가출 청소년의 비행화 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목점선. 200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애착·학교생활적응 및 자기통제력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민수홍. 1994. “Causes and consequences of low self-control : empirical tests of the general theory of crime”. Doctoral thesis. University of Arizona.

_____. 1996. 『비행의 조기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_____. 1998. 『가정폭력이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_____. 2004.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비행 및 피해경험”. 한국청소년개발원 홈페이지.

_____. 2005. “낮은 자아통제력의 결과로서의 청소년비행과 학교에서의 징계경험”. 『청소년학연구』 12(2): 1-25.

민하영. 1992.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 - 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

지』 13(1): 112-124.
민하영・이윤주・이영미. 2004. “대학생의 내면화 및 외현화된 행동문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대학생활 적응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17-27.
박성수. 1991. 가정교육과 청소년비행의 관계 -심층적 면접에 의한 분석.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배병렬. 2005. 『LISREL 구조방정식모델: 이해와 활용』. 도서출판 청람.
연진영. 1992. “아동학대 실태와 관련변인”. 『가정문화연구』 9: 93-122.
이경님. 2000. “아동의 자기통제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7(1): 99-120.
_____. 2001. “학령기아동의 자기통제에 대한 내외통제소재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인과모형 ”. 『대한가정학회지』 39(12): 37-50.
_____. 2004.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행동문제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충북가정학회지)』 13(1): 63-73.
이경상. 2005.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진행경과”. 『제2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청소년개발원.
이민식. 1999.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지각된 부부갈등과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박사학위논문.
이성식. 1994. “구조적・문화적 특성의 차이를 통한 청소년비행의 원인고찰: 세 인종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7: 43-70.
이영미・민하영・이윤주. 2005. “부모간 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따른 후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53-62.
장진아・신희천. 2006. “부부갈등이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부모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의 매개과정”.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18(3): 569-592.
전병재. 1991. 청소년 친구집단과 비행 간의 상관성 연구 - 낙인과정 설명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문자・전연진. 2005.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경험, 부부갈등, 양육행동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의 모형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43(2): 41-55.
채유경. 2005. “지각된 부부 갈등, 폭력노출 경험이 초등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가족 기능과 영적 안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2): 151-171.
하영희. 2003.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4(4), 29-40.
한국청소년상담원 홈페이지. http://www.kyci.or.kr/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Buehler, C. and Gerard, J. M. 2002. "Marital Conflict, Ineffective Parenting, and Children's and Adolescents' Mal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78-92.
Buehler, C., Krishnakumar, A., Anthony, C., Tittsworth, S., and Stone, G. 1994. "Hostile interparental conflict and youth maladjustment." Family Relations 43: 409-416.
Buehler, C., Krishnakumar, A., Stone, G., Anthony, C., Pemberton, S., Gerard, J. and Barber, B. K. 1998, "Interparental Conflict Styles and Youth Problem Behaviors: A Two-Sample Replication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119-132.
Chapple, C. L. 2005. "Self-control, Peer Relations, and Delinquency." Justice Quarterly 22(1): 89-106.

Cox, M. J., Paley, B. and Harter, K. 2001. "Interparental conflic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pp. 249?273. in Interparental conflict and child developmen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edited by J. H. Grych and F. D. Fincham.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Davies, P. T. and Forman E. M. 2002. "Children's patterns of preserving emotional security in the interparental subsystem." Child Development 73: 1880-1903

Demuth, S & Brown, S. L. 2004. "Family structure, family processes, and adolescent delinquency: the significance of parental absence versus parental gender?"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1(1): 58-82.

Dornbusch, S. M. 1989. "The Sociology of Adolescence." Annual Review of Sociology 15: 233-259

Emery, R. E. 1982. "Interparental Conflict and the Children of Discord and Divorce." Psychological Bulletin, 92(2): 310-330.

Erel, O. and Burman, B. 1995. "Interrelatedness of marital relations and parent-child relation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8: 108-132.

Fauber, R., Forehand, R., Thomas, A. M. and Wierson, M. 1990. "A mediational model of the impact of marital conflict on adolescent adjustment in intact and divorced families: The role of disrupted parenting." Child Development 61: 1112-1123.

Gager, C. T. and Benin, M. H. 2005, "The Effect of Parental Marital Conflict on Adult Child Relationship Outcomes: Does the Apple Fall Far from the Tree?." Annual Meetings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Philadelphia, PA: March, 2005.

Gerard, J. M., Buehler, C., Franck, K., and Anderson, O. 2005. "In the eyes of the beholder: Cognitive appraisals as mediators of the association between interparental conflict and youth maladjust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3): 376-84.

Gottfredson, M. R. and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dford, California: Standford University Press.

Grasmick, H. G., Tittle, C. R., Bursik, R. J. J. and Arneklev, B. J. 1993.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 5-29.

Grych, J. H. and Fincham, F. 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Heimer, K. 1997. "Socioeconomic status, subcultural definitions, and violent delinquency." Social Forces 75(3): 799-833.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Inazu, J. K., and Fox, G. L. 1980. "Maternal influence on the sexual behavior of teenage daughters." Journal of Family Issues, 1: 81-102.

Jessor, S. L. and Jessor, R. 1975. "Transition from virginity to nonvirginity among youth: A social-psychological study over time." Developmental Psychology, 11, 473-484.

Kline, R. B. 199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London: The Guilford Press.

Krishnakumar, A., and Buehler, C. 2000. "Interparental conflict and parenting behaviors: A meta-analytic review." Family Relations: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pplied Family

Studies 49: 25-44.

Kumpfer, K. L., Olds, D. L., Alexander, J. F., Zucker, R. A., and Gary, L. E. 1998. "Family etiology of youth problems." in Drug abuse prevention through family interventions, edited by Ashery, R. S., Robertson, E. B., and Kumpfer, K. L.? Rockville, MD: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Loeber, R. and Stouthamer-Loeber, M. 1986. "Family factors as correlates and predictors of juvenile conduct problems and delinquency." In Tonry, M. & Morris, N.(eds.). Crime and Justice. An Annual Review of Research, 7.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9-149.

Marcos, A. C., Bahr, S. J., and Johnson, R. B. 1986. "Test of a Bonding Association Theory of Adolescent Drug Use." Social Forces 65: 135-161.

Margolin, G., Christensen A. & John, R. S. 1996. "The continuance and spill-over of everyday tensions in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 304-321.

Massey, J. L. and Krohn, M. D. 1986.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an integrated social process model of deviant behaviour." Social Forces 65: 106-134.

McCord, J. 1979. "Some child-rearing antecedents of criminal behavior in adult 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477-1486.

_____. 1991. "A Thirty-year Follow-up of Treatment Effect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William T. Grant Faculty Scholars, Durham, NC.

Patterson, G. R. and Dishion, T. J. 1985. "Contributions of families and peers to delinquency." Criminology, 23(1): 63 -79.

Pratt, T. C. and Cullen, F. T. 2000. "The Empirical Statu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A. Meta-Analysis." Criminology 38(3): 931-964.

Sampson R. J. and Laub J. H. 1994. "Urban poverty and the family context of delinquency: a new look at structure and process in a classic study." Child Development 65(2): 523-40.

Savin-Williams, R. C. and Berndt. T. J. 1990. "Friendships and Peer Relations during Adolescence." pp. 277-307 in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edited by Shirley S. Feldman and Glen R. Elliot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Simons, R. L., Whitbeck, L. B., Beaman, J. and Conger, R. D. 1994. "The Impact of Mothers' Parenting, Involvement by Nonresidential Fathers, and Parental Conflict on the Adjustment of Adolescent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2): 356-374.

Smith, C. A. and Stern, S. B. 1997. "Delinquency and antisocial behavior: a review of family processes and intervention research." The Social Service Review 71: 382-420.

Steiger, J. H. 1990. "Structural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An Internal Estimation Approa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5: 173-180.

Sutherland, E. H. and Cressey, D. R. 1978. Criminology, 10th edition. Philadelphia: Lippincott.

Tolan, P. H. and Loeber, R. L. 1993. Antisocial behavior. In Tolan, P. H. and Cohler, B.J.(eds), Handbook of Clinical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with Adolescents, New York: Wiley, 307-331.

Tolan, P. H., Guerra, N. G. and Kendall, P. C. 1995. "A developmental- ecologic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Toward a unified risk and intervention framework."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3(4): 579-584.

Wiatrowsi, M. D., Griswold, D. B. and Roberts, M. K. 1981., "Social Control Theory and Delinquenc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5): 525-541.

An Analysis of Pathways from Parental Conflict, Parenting Behavior and Self-control to Adolescent Delinquency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Delinquent Peers and School Maladaptation

Jeong, So-He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enter for Social Sciences Institute of Social Welfa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pathways from family factors such as parental conflict, parenting behavior and adolescents' self-control to adolescent delinquency, and to explore the mediating effects of delinquent peers and school maladaptation.

The 2004 Korea Youth Panel Survey data were used for analysis and the total number of subjects were 2,968 middle school students with two parents including step parents family. Data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5 and SPSS 10.

The major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ffects of parental conflict on adolescent delinquency were mediated by parenting behavior, adolescents' self-control, delinquent peers and school maladaptation. Contrary to parental conflict, parenting behavior had a direct effect on adolescent delinquency as well as indirect effects.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this article provided some suggestions for preventing or reducing adolescent delinquency.

Key words : adolescent delinquency, parental conflict, parenting behavior, self-control, delinquent peers, school maladaptation

[논문접수일 2006. 9. 7. 게재확정일 2006. 11. 16.]